



**신한라이프, 임직원 걸음기부로 국가유공자 신발 후원**  
 신한라이프는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을 통한 임직원 걸음기부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신발을 후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순기 신한라이프 전략기획그룹장(왼쪽)과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KT-국립과천과학관, AI 인재 양성 업무협약**  
 KT는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AI(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정호 KT 전략·신사업부문 에듀AX사업단장(왼쪽)과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효성, 협력사에 안전조끼 4000벌 전달**  
 효성은 지주사를 비롯한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등 계열사의 건설현장 및 지방 사업장 협력사 200여 곳에 안전조끼 4000벌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장비 지원은 협력사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효성



**한국타이어, 하반기 '생명나눔 헌혈캠페인' 전개**  
 한국타이어는 대전시 대덕구 옥상동 대전공장과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산공장에서 '2024 하반기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각각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임직원들은 혈액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겨울철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고자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탤다. /한국타이어



**한투증권-FC서울, '행복나눔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한국투자증권이 FC서울과 함께 '행복나눔 어린이 축구교실'을 개최했다. 2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축구교실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0명이 참가했다. 어린이들은 이승모, 최준 등 FC서울 선수들과 함께 미니게임을 즐기는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

# 허진수 SPC 사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만찬 참석

식품무역박람회 60주년 기념 SPC그룹, 韓 기업 유일 초청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허진수 사장이 21일 저녁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초청받아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파리 엘리제궁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국제 식품무역박람회(SIAL)의 60주년을 맞아 진행된 것으로 네덜란드의 스파(유통), 일본의 마루베니(곡물·무역), 프랑스의 사벤시아(유제품)·리마그랑(농업)·유리알(유제품) 등 글로벌 식품·유통산업 관련 기업인 약 40명이 초청됐다.

한국 기업으로는 SPC그룹이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다.

SPC그룹은 밀·버터·치즈 등 프



21일 저녁(프랑스 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SPC그룹 허진수 사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궁)

랑스산 식품원료에 대한 통상 활동이 활발하며,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뜨'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물론 미국·중국·영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14개국에 진출해 총 4000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SPC그룹이 한·프랑스 경제 및 음식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만찬 행사에서 프랑스의 우수한 식품원료와 음식문화를 한국과 세계인들에게 전파하고, 프랑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교류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켜준 SPC그룹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SPC그룹은 2018년과 2022년에도 프랑스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최하는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 행사에 초청돼 허영인 회장이 참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삼성전기, '동반성장 소통포럼' 개최 장덕현 사장 "상생협력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

이오테크닉스사 공로상 시상

삼성전기가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삼성전기는 지난 22일 이오테크닉스사에 방문해 협력사 협의회(협부회) 회원사들과 '동반성장 소통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반성장 소통포럼은 회사의 전략과 계획, 투자 전망 등을 교류하고, 질의 응답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다.

이 날 행사에서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은 사업부별 주요 추진 방향과 제품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이 지난 22일 열린 동반성장 소통포럼에서 신사업 프로젝트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기

고 전장(Mobility industry), 로봇(Robot), 인공지능·서버(AI·Serve

r), 에너지(Energy)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Mi-RAE)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은 "미래 산업의 기술 실현은 부품·소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협력사와의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삼성전기는 15년간 협부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상생 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하고, 동반 성장 실현해 온 이오테크닉스사에게 공로상을 시상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에코프로 "中-인니 통합법인 만들 것"

창립 26주년 기념식

삼원계 양극재 경쟁력 극대화 방침

에코프로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초격차 기술과 코스트 리더십으로 삼원계 양극재의 경쟁력을 극대화해 나간다.

에코프로는 포항캠퍼스에서 26주년 창립기념식을 열고 실패와 도전

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현재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삼원계 양극재 경쟁력을 극대화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현재의 캐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줄 것

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위기 타개책으로 중국 GEM과의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설립 구상을 제시했다.

이 전회장은 "초격차 기술 리더십과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해야 이차전지 사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며 "중국 GEM과 힘을 합쳐 광산, 제련에서 양극재, 리사이클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하면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 이상득 前 의원 별세

(17대 국회부의장)

제17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전 의원(사진)이 2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부의장은 1935년 경북 영일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한 뒤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섬유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수출을 주도한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

고인은 1988년 제13대 경북 영일·울릉 지역구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제14·15·16·17·18대까지 포항남·울릉 지역구에서 내리 6선에 성공했다.

의정활동 중에는 국회부의장, 운영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 한일의원연맹회장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당직을 두루 거쳤다.

유족으로는 아내 최신자씨와 자녀 지형·성은·지은씨, 며느리 조재희씨, 사위 구분천·오정석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이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30분이다. /원승일 기자 won@

## 인사

◆골든블루 ◇부사장 승진 △최강진

## 부음

▲곽청수씨 별세, 곽평화(목사)·빈화·배화 부친상, 김병탁(전 시카고 포스터은행 은행장)·성기철(전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서봉대(전 뉴스원 부국장) 장인상= 23일,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031-910-7444

▲김영중씨 별세, 김선영(올댓스포츠 부장)씨 부친상 = 23일,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 401호, 발인 25일. 02-2676-4444

## 내달 6일 '지방시대 엑스포' 열린다

KIAT 지방시대 정책 성과 공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내달 6일~8일까지 3일간 강원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으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회째인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현주소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로 열린다.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학계, 활동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방시대 정책 성과를 나눈다. 특히 올해는 문체부, 조달청, 통

계청, 산림청 등 정부 부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전시관, 국제협력 워크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더욱 확장되고 연결된 지방시대 정책 박람회 현장을 제공한다.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전시관은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고 실감나는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지방시대 정책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